

각국의 골판지포장 동향

무역협회 제공

멕시코 골판지 박스 산업 동향

멕시코의 골판지 박스 및 포장 산업은 집중화된 것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주요 최종수요자들은 제조업과 농업, 포장식품 및 음료, 인쇄출판 부문이다. 골판지 박스 생산 기계에 대한 수요는 다른 산업의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경기 호황기에는 포장재 및 박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생산기계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다.

2000~2002년 중 멕시코의 골판지 박스 생산기계 구매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수입시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약 500만달러 가량 축소됐다. 그러나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의 27%에서 2002년에는 32%로 높아졌다. 미국과 함께 유럽의 멕시코 시장점유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첨단장비와 고객 서비스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의 골판지 박스 생산기계 산업은 미국업체와 유럽업체들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대형 골판지 박스 생산업체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다지는 한편 고객들에게 유리한 판매전략을 전개하는 업체들이 시장선도업체로 부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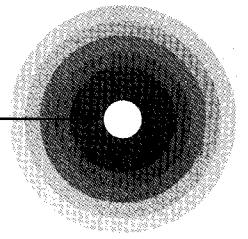
국제골판지박스협회에 따르면 2003~2006년 기간 중 북미지역의 골판지 생산증가율은 2.1~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 시장에 대한 전망은 다

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 골판지 박스 생산업체인 Grupo Titan社의 한 관계자는 골판지 박스 생산기계 산업이 2002년에 침체국면을 맞이한 데 이어 금년과 내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05년에는 3%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멕시코업체인 Inland Paper社의 관계자도 골판지 박스 부문의 성장이 당분간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어쨌거나 멕시코 골판지 박스 시장에 대한 전망은 일치된 의견이 없는 가운데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골판지 박스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예로 Smurfit社의 한 관계자는 멕시코의 골판지 생산기계 구입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1~2% 포인트 능가해 향후 2년간 8~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과 멕시코 시장의 연관관계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소비가 늘어날 경우 멕시코의 골판지 박스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제지산업 현황

인도의 제지 산업은 수요가 늘어나고 주요 업체가 생산을 확장함에 따라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세계 주요 업체들과의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지산업 관계자들은 업체의 경



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국내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다음은 인도 제지 업체 연합 회장과 Paper and Boards 사 회장과 나눈 대담이다.

*** 제지 시장은 지난 몇몇 분기 동안 호황이었다. 주요 요인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제품에서 2003년 4월 가격이 톤당 1000루피 올랐고 이것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가 제지산업 활동을 견인했고 낮아진 이자율이 금융비용을 줄이는데 일조했다.

*** 2004년도 전망은?**

당 분기는 계절적인 하락요인이 있다. 수요는 2004년 1월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2003~4년의 업체 대부분의 활동 결과는 2002~3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 수입관세가 인하되는데 업계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지 수입 관세 적용율은 현행 25%에서 20%로 줄어들 것이며, 업계에 큰 타격은 없을 듯 하다. 관세가 10% 이하로 내려가면 업계는 외부의 심각한 경쟁에 노출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제지업계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루피 화 강세 또한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제지 산업의 경쟁력은 목재 섬유의 부족과 높은 목재 비용이 값아먹는다. 인도 목재의 톤당 가격은 약 70달러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같은 국가의 2배에 달한다. 에너지 비용도 걸림돌이다. 국가에서 공급하는 전력 비용은 9센트(킬로와트/시간)이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는 3~4센트에 불과하다. 다른 경쟁국과 비교할 때 인도의 화학제품 비용도 높으며, 임금은 낮은 수준이나 생산성

또한 낮다.

*** 원자재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농장 모델이 인도에 적용될 수 있다. 성공적인 산업용 농장 프로그램은, 인도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농촌 빈민인구에 막대한 고용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고갈된 삼림지역을 조립하기 위한 산업적 농장에 대한 국가적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 아세안의 지역 무역협정이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인도네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은?**

인도와 아세안간의 종합 경제협력 기본 합의서에는 제지와 보드지 산업도 포함된다. 인도는 또한 아세안의 몇몇 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관세 인하가 가속화될 것이고 2011년 이전에 관세 철폐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 협정으로 인도 제지 산업은 어려움에 처할 전망이다.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없이는 제지산업이 펄프와 제지를 세계에서 최저 비용으로 생산하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업계는 산업용 농장 정책을 정부에 요청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업계는 아세안과의 수입자유화에 대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중국을 향후 10년간 2,000억위안(약 240억달러) 규모의 조립 및 제지부문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산업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승인하였다고 중국개발개혁위원회(SDRC)는 밝혔다.

SDRC의 Liu Tienan 회장은 베이징에서 열린던 기자

회전에서 이번 안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제지수요를 맞추고 환경보호 압력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남동부 해안지역 500만헥타르 규모에 나무를 심는 계획과 산림지역에 대형 제지공장을 건립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 SDRC가 연간 생산능력이 50만톤 이상되는 3~4개의 제지공장의 위치를 선점할 예정이다. 또한 남서지역에 연간 생산능력이 10~50만톤에 달하는 죽재 제지공장 건립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중국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제지 소비는 연간 두자리 성장을 거두었으며, 2003년 중국의 제지 소비량은 4,800만톤에 달했고, 이는 세계 전체 소비량의

16%에 해당한다.

한편 중국은 벌채할 수 있는 목재가 제한되어 있어 대신 밀짚을 제지생산의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밀짚을 가공하는 경우 목재보다 환경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는 최근 중국에 상당한 골칫거리이다. 2000년 10월 중국 북부의 Hebei 지방에 위치해 있는 제지공장에서 배출된 오염수는 Bohai 만에 위치해 있는 200ha의 양식장을 모두 황폐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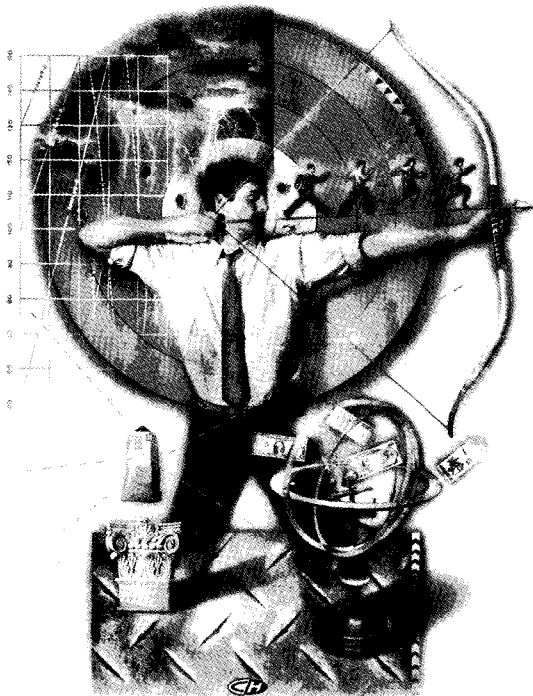
중국의 제지 소비량은 2010년 7,000만톤을 육박할 전망이다이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가로 55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제지협회(CPA)는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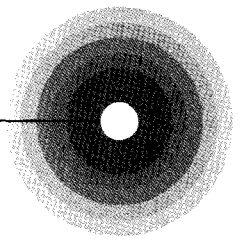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중국은 북부와 북동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제지공장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반면 연간 생산능력이 17,000톤 미만의 소규모 제지공장은 폐업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곳에는 소규모 자본만을 투자하고 대신 대부분의 자금은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외국 투자자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반기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제지 제조업체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합병 및 공동사업을 장려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제지 생산에 대한 선진기술과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방식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해외의 우수한 인력과 전문기술을 이용하여 제지 생산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조립 조성과정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여 품종개량, 산불예방, 해충 및 질병통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지산업이 상당한 시장 잠재력이 있으며, 이 부분의 성장으로 인해 농업, 포장, 인쇄, 화학, 기계, 교통과 같은 다른 부문에까지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고강도 골판지 공급 부족사태

외국인 투자가 중국의 고품질 제지와 판지 부문을 급속도로 성장시켰지만, 중국은 아직 고강도 골판지 부족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는 2005년까지 중국이 160만톤의 골판지 부족현상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한다.

1990~1999년 중국의 제지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동기간 골판지 소비는 매년 30% 증가, 이는 코팅된 화이트보드지 다음의 수요량을 보였다. 골판지 소비는 2001년 13.9%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제지제품 소비 중 2위를 차지, 소비가 생산을 초과하는 제지 제품 중 하나이다. 2002년 골판지 부족량은 115만톤에 달했다. 10번째 5개년 계획 중 제지산업을 살펴보면, 골판지 소비는 2005년까지 480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시장의 높은 수요와 공급 부족현상은 골판지 대량 수입 결과를 초래해왔다.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입의존도는 향후 수년간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제지제품 수입이 하락했던 2002년에도 골판지 수입은 증가했으며, 연성장률이 13%(118만톤)에 달해 전체 제지 수입의 21%를 차지했다. 이러한 부족사태는 골판지가 저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이며, 많은 제지업체들은 고부가가치이며 시장수요가 높은 크래프트 판지와 화이트 판지 생산으로 몰렸다. 새롭게 시작된 골판지 프로젝트의 수는 미미했으며, 이로 인해 공급부족현상이 일어났다. 저품질, 고강도, 세부사항이 많은 골판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요 증가 현상이 일어났으며, 고/중 강도의 골판지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골판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예견한 일부 업체들은 생산시설 확장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 예로, Dongguan Jiulong Paper Industry Company는 골판지를 포함한 전체생산량을 2백만톤으로 증대하기 위해 6개 생산라인을 추가할 계획이다. 강소성에서는 고지(waste paper)를

이용한 대형 골판지 생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연생산량이 20만톤, 2010년까지 40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많은 골판지 시장이 투자에 대해 가장 수익이 많은 제지 품목이 될 것이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수입관세가 하락하긴 했지만, 2003년 1/4분기 고강도 골판지 수입은 34% 증가했다. 골판지 수입관세가 향후 큰 변동이 없다면, 수입은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제지시장, 관세인하로 외국기업의 공세 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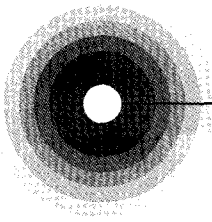
지난해 중국의 제지 및 보드지 생산과 소비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제지 원자재 수입규모는 70억달러로, 원유, 냉연 강판(rolled steel)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것이다.

금년 중국의 제지산업 생산규모는 지난해보다 6% 증가한 3,6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제지 및 보드지 소비량은 2005년이면 연간 6% 성장률로 5,000만톤, 2015년이면 8,000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중국제지협회(CPA)는 내다봤다.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과잉공급인 상황과는 달리, 제지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몇 안되는 산업이다.

현재까지 약 12개 정도의 다국적 업체가 이미 중국에 공장건립을 마쳤으며, 오프셋 용지, 가벼운 코팅용지, 광택지와 같은 고품질 제지를 제조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업체로는 핀란드 UPM, 핀란드-스웨덴 합작회사인 Storaenso, 인도네시아의 APP가 있다.

반면 시장을 주도하는 국내업체들은 대규모 투자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제지산업은 투자한 만큼 결실을 보는 것이 정석이지만, 투자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큰 것도 사실이다.

고품질 제지를 10,000톤을 생산하는 공장을 예로 들면, 통나무에서 펄프로 만드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1억 5,000만~2억위안이며, 펄프에서 제지 공정과정에는 최소 1억위안이 추가로 소요된다. 즉, 총 2억5,000만~3억 위안이 드는 셈이다.

게다가 제지산업은 생산규모가 비교적 크다. 해외업체들의 최소 생산규모는 펄프공장 하나에 약 30만톤, 제지공장의 경우 15만톤이다. 이것은 최소 규모의 생산규모를 가진 업체라 하더라도 약 15억~6억위안의 투자비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원자재가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북유럽의 제지업체들에게 있어서 별채지역이 주로 반경 30km이지만, 중국 업체들의 경우 약 1,000km에 이른다. 따라서 여기에 그만큼의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임업과 제지업을 통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이라는 것은 중국 제지업체들의 수를 1/3으로 축소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와중에 외국업체들은 보다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APP社는 하이난성(Hainan), 광서(Guangxi), 광둥(Guangdong)지역의 삼림에 투자하고 있으며, Storaenso社는 이미 삼림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UPM社의 한 자회사도 중국의 삼림투자계획을 검토중이다.

고품질 제지의 절반은 단연 해외기업들이 선두주자이고, 나머지 반의 3/4은 외국소유기업과 외국합작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그 나머지만을 중국 업체들이 충당하고 있다.

다양한 제지 제품들의 주요 관세사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후 WTO 규약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 우선 제지의 평균 관세율은 15.2%에서 9.7%로 인하되었다. 지난해 관세가 가장 높았던 부문은 펄련용(담배)

얇은 종이로 26.3%였으며, 가장 낮았던 부문은 크레프트(시멘트 포대용) 종이와 보드지로 7.2%였다.

그 밖의 신문용지의 관세는 2006년까지 5%, 지난해 9%까지 인하되었던 코팅용지는 2004년까지 5%, 지난해 7.2%~9.4%까지 인하되었던 포장용지와 보드지는 2004년까지 2%~7.5%로 인하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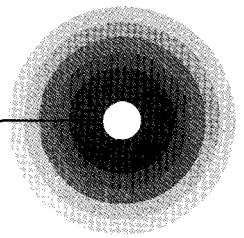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인하폭이 적용되는 부문은 펄련용 종이로 지난해 26.3%에서 2005년 7.5%로 인하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가공 처리된 제지와 제지용품의 관세는 지난해 9~16.3%에서 2004~5년에 7.5%로 인하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에 외국산 제품들이 중국시장에 보다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세계 2위의 종이제품 생산국

중국이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제지국가로 부상할 전망이다. 개혁개방의 시작이래 제지산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종이 제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시장의 연평균 종이제품 수요증가율은 3%인데 비해 중국은 7%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1년 중국의 종이 및 판지 생산량은 3,200만톤에 달했고 소비량은 3,683만톤이어서 1인당 소비량은 29kg을 기록했다. 2002년에는 국내생산과 소비량이 미국 다음으로 높아 세계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산업관계자의 전망에 의하면 중국의 종이 및 판지 소비는 2005년에 5천만톤에 이를 것이며 2015년에는 8천만톤을 상회할 것이라 한다. 이는 연평균 4.8%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며 1인당 56kg의 종이를 소비하는 수준이다. 이 기간동안 제지산업 투자는 4,9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매년 300억위안의 금액이 투자되는 것이다.

1990년을 기점으로 세계적인 제지기업의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 수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고급종이가 들어와



중국 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했다. 제지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은 이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 왔다.

2001년 4월부터 중국은 노트와 스탬프 인쇄지를 제외하고 화학지, 우드 펄프지, 산업용 원재료용 조립사업, 일부 고급제지 생산 등을 외국인 투자진흥 카테고리에 분류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제지분야에 많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었다.

현재까지 10개 이상의 다국적 제지업체가 중국에 공장을 세웠다. 제품은 대부분 우드 페이퍼, 코팅지, 아트지와 같은 고급제지 생산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다국적 제지업체에는 핀란드의 UPM, 스웨덴의 스토라 엔소(Stora Enso), 인도네시아의 APP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계에 의하면 외국 자본으로 세워진 기업들이 고급 제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요로 볼 때 50%가 수입으로 충당되며 나머지 50% 중 3/4정도가 순수 외국인 회사와 중외 합작회사의 제품이다. 나머지는 국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다.

제지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요하면서 리스크가 높은 산업으로 규정지어진다. 외국기업에 비해 중국기업들은 생산능력과 자본조달력에서 뒤쳐진다. 중국의 연평균 제지산업 투자는 최근 100억위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필요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중국, 수입 폐휴지에 24% 추가관세 부과 예정

(2002년 6월 17일) 철강관세 분쟁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수입 폐휴지에 24%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계획은 펄프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중국내 종이제품 가격을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종이를 만드는 섬유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

휴지는 종이제조에 중요한 원료이다.

중국은 재활용되는 폐휴지의 절반정도인 642만톤의 폐휴지를 수입해 왔으며, 2002년 중 폐휴지 수입은 8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폐휴지의 70퍼센트는 미국에서 수입되고있다. 이전에는 수입폐휴지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1톤의 폐휴지를 재활용하는 것은 3평방미터(105 평방피트)의 목재, 1.2톤의 석탄, 600킬로와트/時的 전기와 100톤의 물을 보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중국 국립전기산업의 임원인 Gu Minda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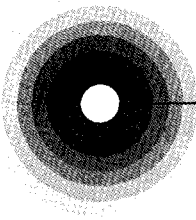
중국신문협회는 「제지산업에 관한 연간보고서」에서 2001년에 중국의 종이와 카드보드의 총생산량은 3200만톤이었으며, 1310만톤의 폐휴지펄프를 포함한 종이펄프 생산은 2980만톤 이었다고 발표했다.

종이 생산의 원료의 반 이상이 폐휴지라고 Gu는 말했다. Zhejiang과 광둥지방 같은 해안지역에서는 폐휴지가 각각 76퍼센트와 60퍼센트의 제지섬유를 제공한다.

2001년, 평균 폐휴지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31.6% 하락한 톤당 102.6톤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입된 폐휴지의 가격은 연초 이래로 50% 상승했으며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에 관한 관세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일년 정도 소요되겠지만, 추가관세 부과 조짐으로 인해 제지산업에 심각한 파장이 야기되고 있다.

Zhejiang 지방의 Fuyang시에 있는 Guozing제지는 지역내의 수많은 중소규모 제지회사 중 하나이다. 총괄이사인 Sun Jianzhi은 폐휴지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그의 회사는 이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가는 손해를 보는 장사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생산을 중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고 그는 말했다.

항저우 지방의 Snazing제지의 Zhu라는 중역은 회사의



폐휴지 재고가 적어도 석 달간은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지상품의 가격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록 현재의 시장가격이 많은 가격인상의 여지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폐휴지의 가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지상품의 가격도 또한 오를 것입니다.”라고 Zhu는 말했다.

종이와 제지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올해 8.9%로 떨어졌고 폐휴지에 대한 24%의 추가 관세는 수입 폐휴지를 사용하던 국내 제지업체들이 더 많은 펄프를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Henan Dadi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Co. 수입부서의 관리자인 Hou가 말했다. 중국국립전기산업의 Gu Minda는 국내의 폐휴지의 자원을 늘리기 위해 종이의 재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1년에는 중국에서 단지 9950만톤 혹은 27%의 폐휴지만이 재활용되었고, 이는 세계평균인 43.7%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신문과 종이포장지, 골판지, 포장상자의 재활용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Gu는 말했다.

일본,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재활용지 수출 급증

아시아 지역의 재활용 종이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활 용지를 사용하는 일본 회사들은 가격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재활용지가 전적으로 일본에서만 거래되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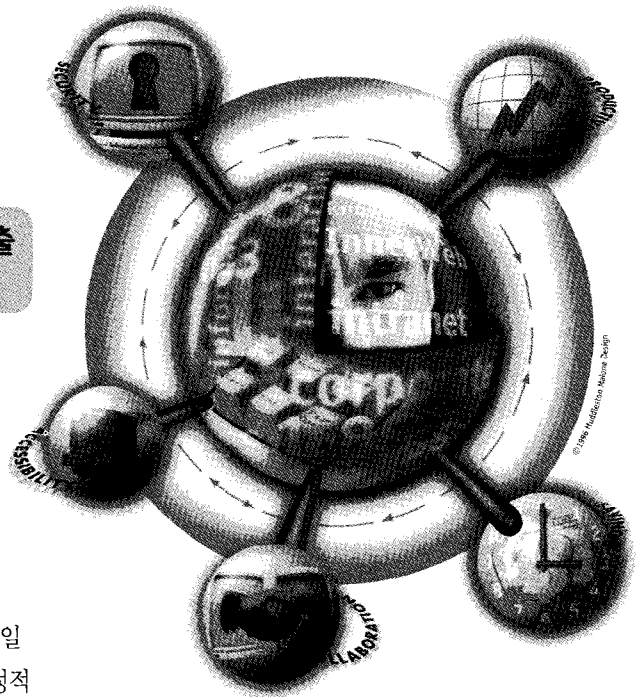
마루베니 페이퍼 리사이클(Marubeni Paper Recycle Co.)의 준 이노우에 이사는 재활용 회사들이 일본 뿐 아니라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도 재활용지의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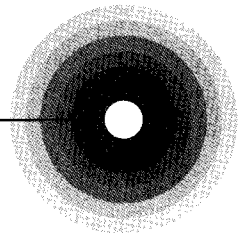
공급이 필수적임을 점차 인식해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작년의 재활용지 수출량은 2000년의 37만 2000톤에 비해 4배 증가한 146만 6000톤에 달했으며 관계자들은 올해안에 2백만 톤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수집된 재활용 종이의 1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수출의 증가는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관동 지방의 도매상들이 재활용 종이를 무역업자에 넘기는 가격, 즉 수출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가격이 지난 해에 비해 세 배 이상 상승하여 현재는 킬로그램당 12엔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제지업체들의 구입 가격은 6월 중순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킬로그램당 7엔에 머물고 있다.

종이와 판지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일본 제지 업체들간의 재활용 종이에 대한 수요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에 중국을 비롯한 기타 아





시아 국가들에서는 가정용 기기, 섬유 그리고 식료품 등의 포장용으로 판지에 대한 수요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가동을 시작할 중국의 판지 생산 공장은 연간 생산량이 200만 톤이며 이는 일본 최대 생산업체의 생산량보다 많다.

일본의 제지업체에서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는 이들은 높은 수출가격 때문에 재활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불평한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제지업체들은 현재 일본으로부터 재활용 종이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본산이 미국산보다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기술 개선에 힘입어 일본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 회사들이 일본산 재활용지를 보다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단기간에 인도가 가능하다는 점과 제품의 등급구분이 철저하다는 점 등도 작용하였다.

일본의 한 제지업체의 관계자는 대량 수출이 없었을 당시에는 국내 생산업체들이 가격 협상을 주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차 음료 수요증가로 종이포장 업체 성장

일본에서 차 음료(ready-to-drink)의 수요급증으로 음료제품 포장업체 Stora Enso Consumer Boards Japan社와 Nippon Paper-Pak社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 Nippon Paper-Pak은 Stora Enso의 고급 마분지를 사용하는데 이는 다양한 향기와 섬세한 맛의 음료 보관에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일본 비주류 음료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냉장 차 음료의 매출규모는 528만 5,000톤으로 234만 3,000톤의 탄산 음료와 153만 7,000톤의 과일주스 매출규모를 훨씬 앞지

르고 있다. 가장 근접한 경쟁부문은 444만 9,000톤의 매출을 기록한 우유이다.

제품포장의 선두 업체인 Nippon Paper Pak은 차 음료의 유행이 계속되고, 새로운 차 음료 브랜드가 속속 시장에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선의 포장방법을 찾기 위해 Stora Enso는 Nippon Paper Pak과 공동작업을 하였다. Nippon Paper Pak은 다중 포장 재질의 선택적으로 비타민 C보존도 등도 검사하는데, 내용물 보관효과가 높고 재활용 처리가 가능한 포장재질의 차 음료 포장으로 Stora Enso제품이 선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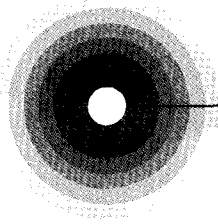
녹차포장의 경우 향기와 순수한 맛을 보존할 수 있는 포장재질이 필요한데, 맛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산소의 양이 제품 유효판매시까지 적정하게 유지되어야한다. 소비자들이 특유의 녹차 향 유지여부에 민감하기 때문에 품질유지가 정밀하게 요구되었다.

Nippon Paper Pak의 생산부문 관리자는 Stora Enso의 다중판지 포장은 또한 일반 재활용이 가능하여 다른 자재와는 달리 쓰레기 처리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다고 한다.

Stora Enso의 다중포장은 맛에 민감한 제품의 장기간 보관을 위해 만들어졌다. 회사의 다중포장 폴리머 코팅은 가볍고, 산소와 습기차단 효과가 좋으며 이용분야로는 과일 주스, 물, 차, 우유 발효음료, 요구르트, 와인 류가 있다.

베트남, 제지업계 동향

지난해 7월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자유무역지역 협정(ASEAN Free Trade Area)이 발효되어 값싼 롤 제지가 수입되면서, 지난 20년 간 새로운 현대적 제지생산설비가 건립되지 않는 등 경쟁력이 취약한 베트남 제지업계는 불투명한 장래를 맞고있다.



베트남 제지협회(Vinapimex)의 회원업체들은 국내 제지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설비개선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공장설립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Vinapimex의 Le Duc Hong은 업체들이 시대에 뒤쳐진 장비로 종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능력과 품질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산업부장관 Bui Xuan Khu씨 역시 베트남 대부분의 제지공장이 소규모이고 제조기술도 기타 ASEAN 가입국보다 뒤쳐져 있다고 시인한다.

올 상반기 국내 종이제품 수입물량이 20만 톤을 초과한데 비해 Vinapimex회원업체들의 생산은 10만 여 톤에 불과했다.

우선 베트남의 국내 제지생산품 가격경쟁력은 ASEAN 회원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호치민시의 대표 제지 무역업체 중 하나인 Khai Hoan Trade사의 간부는 Tan Mai Paper社의 필기용 종이 생산원가가 톤당 877달러인데 비해, 태국과 인도네시아 종이제품은 세금 및 제반비용을 포함해서 톤당 822~842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톤당 가격이 764달러인 Bai Bang Paper社의 제품이 베트남에서 그나마 경쟁력 있는 제품 중 하나이지만, 이 회사는 새로운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7월부터 6개월 간 조업 중단에 들어갔다.

베트남 시장에 관심이 많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대규모 제지업체들은 Bai Bang Paper社의 일시 조업중단을 맞아 다음달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베트남 국내 제지업계의 또 하나의 장애 요인은 전기, 원유, 석탄의 가격인상으로 수입펄프 가격이 16~19% 높아져 생산비용이 작년보다 인상되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면 베트남 생산업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국내생산 및 수입 제지의 판매부진도 문제인데, 호치민시의 몇몇 제지업체들은 지난 2주간 국내 필기용 종이의 판매가 50%나 급락하였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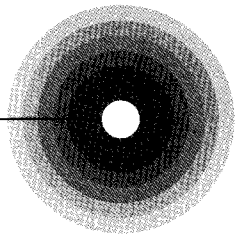
Vinapimex측은 Bai Bang Paper社의 시설확장과 Kon Tun, Thanh Hoa, Bac Can제지공장 건설 등의 4대 프로젝트에 10억 달러의 투자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제품의 판매증대를 위해 마케팅 및 광고 강화, 국내 제지시장 확대 등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베트남 제지업체들에게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펄프와 같은 원자재의 국내 조달을 촉구했다.

Bai Bang Paper社는 생산라인이 재개되는 대로 마케팅을 담당할 광고회사를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리점 판매 시스템을 재편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스타리카, 제지산업 동향

코스타리카는 중앙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에서 일인당 제지와 보드지 수요와 수입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였다. 이는 코스타리카의 산업 특히, 인쇄와 그래픽 산업 발전의 척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1999~2001년 사이 GDP 성장둔화와 함께 제지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코스타리카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99년 8.3%와 10%, 2000년 1.4%와 10.3%, 2001년 0.9%와 11%를 기록했다. 이러한 여파로, 제지산업 규모는 99년 3억4030만달러에서 2001년 3억3740만달러로 감소했다. 이러한 트렌드는 향후 3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제지시장 성장률도 3~5%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코스타리카 제지 수입규모를 살펴보면, 99년 53만8천톤, 2000년 31만5천톤, 2001년 32만7천톤이었다. 코스타리카에 수입되는 제지류의 HS 코드는 4801-0000~4818-9090까지이다.

크래프트지와 보드지는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제지류이다. 非코팅/非표백된 크래프트지는 포장박



스와 시멘트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크래프트 백 생산에 사용된다. 중앙 아메리카 최대의 바나나와 열대과일 생산국으로서 코스타리카의 골판지 박스 수요는 매우 높다. 6개의 대형 골판지박스 생산업체와 소형업체들이 있으며, 2개의 대형 시멘트 제조업체가 있다. 크래프트지와 판지의 HS 코드는 4804이다.

코스타리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제지는 신문 인쇄지이며, 이는 롤로 수입되어 신문지 생산에 사용된다. 이 종이는 전화번호부의 화이트/옐로우 페이지 생산에도 사용되며, 내수용뿐 아니라, 자마이카, 도미니크 공화국, 푸에르토리코에서도 사용된다. 신문용지의 HS 코드는 4801이다.

롤과 시트형태의 코팅되지 않은 제지와 보드지는 코스타리카에서 3번째의 수요를 자랑하며, 편지지(writing paper), 팩스지, 인쇄지, 컴퓨터 인쇄 그리고 여타 그래픽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본드(bond)" 지로 불리고 있다. 정부, 일반 기관, 민간 광고업체와 기업체, 학교, 대학, 복사 매장 등 여러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고, 책, 노트, 매뉴얼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HS 코드는 4802이다.

표백된 단단한 종이와 보드지는 접혀지는 박스와 포스터, 교재 커버, 라벨, 잡지, 브로셔 등 생산에 사용된다. 이 프린트된 종이는 주로 포장목적으로 사용된다. 기업, 산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를 생산하는 인쇄 업체가 몇 개 있으며, 해당 HS 코드는 4810이다.


많은 제지의 수요는 국가 경제, 세계 가격 그리고 농업 제품의 수요를 반영하며, 국가의 인구증가도 반영한다. 코스타리카의 인구 증가율은 약 2.5% 수준이다.

최근 코스타리카의 일부 업체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제조시설을 이전하고 있으며, 신발제조업체인 ADOC, 과일주스 업체인 Jugos del Campo, Colgate Palmolive, Johnson & Johnson (cleaning products)

가 그 예이다. 이에 따른 제지 수요 감소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나 커피같은 대부분의 농산물 국제가격이 낮을 전망이어서, 크래프트지의 수요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최근 인터넷 사용증가는 팩스나 컴퓨터 프린터용 본드지 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다. 인쇄업체는 또한 인쇄지, 특히 연습지(writing paper)의 수요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많은 부문에서 컴퓨터 프린트를 증가하면서 손으로 쓰는 일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쇄업체에서부터 기업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사무실용 종이 수요도 급감할 전망이다.

반면, 신문용지와 잡지용 종이 부문은 원활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독서가 일상화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용 혹은 문화용 교재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많은 슈퍼마켓과 체인들이 생겨나고 있어 홍보목적의 인쇄지의 수요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축 발 전

뜻깊은 창립이 무궁한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대성판지

대표이사 오진수

2월 20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